

‘나 홀로’ 장년층 10명 중 1명 고립 위기

제주연구원, ‘중장년 1인 가구 자립 지원’ 보고서
제주 최근 6년 새 20% ↑… 전체 1인 가구의 46%
연구진 “사회적 고립 예방 위해 맞춤형 지원 필요”

제주지역 중장년 1인 가구 수가 지난 몇 년간 빠르게 늘면서 이들을 위한 제주형 자기돌봄 및 자립지원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5일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가 공개한 ‘중장년 1인 가구의 자기돌봄 및 자립지원 모델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중장년 1인 가구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18년 3만6061명에서 2024년 4만3909명으로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1인 가구 중 4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차지했다.

중장년 1인 가구 형성 요인을 살펴보면,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때문’ (35.5%), ‘가족과의 사별 때문’ (16.3%), ‘개인적 편의(사생활 보장 등)와 자유를 위해’ (15.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지역에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2021년 4.5%에서 2023년 8.4%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장년층(50~64세)은 9.8%로 나타나 고립 문제는 더 이상 노년층만의 과제가 아

니라는 점이 드러났다.

연구진은 중장년 1인 가구의 문제를 경제·주거·건강·관계가 얽히며 위기가 겹치는 다중위기 구조로 분석했다.

연구진이 도내 중장년 1인 가구 관련 프로그램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초점집단면접 결과, 중장년 1인 가구는 불안정한 소득과 시간제 일자리 부족, 주거 불안정으로 ‘기본 생활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대인관계의 단절과 이주로 인한 관계 상실, 관계 회복의 어려움으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로 인한 건강 취약성, 디지털 역량 부족, 이동 제약과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상호작용하

며 악순환을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연구를 통해 중장년 1인 가구의 생활 실태와 위기로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제주지역 여건에 맞는 자기돌봄 및 자립지원 모델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장년 1인 가구가 ‘혼자 사는 삶’이 곧 ‘혼자 감당해야 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진행됐다”며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회적 고립, 자기방임, 건강 악화가 중장년 1인 가구에서 더 쉽게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도, 제주항 100주년 앞뒤 日 벤치마킹

오영훈 지사 하카타항 시찰… 여객·물류 혁신 모색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제주항 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크루즈 항만 재도약과 해양인프라 혁신을 위해 일본 후쿠오카 하카타항(후쿠오카항) 벤치마킹에 나섰다. >> 사진

제주도는 지난 23일 일본 규슈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 인프라 사례인 사가현 SAGA 아레나와 후쿠오카항을 잇달아 시찰하며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인프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야마구치 요시노리 사가현 지사와 함께 SAGA 아레나를 방문해 약 8400석 규모의 지역 체육·문화시설 운영 사례를 공유받았다. 또한 후쿠오카항에서는 여객·물류·복합 운영 체계, 크루즈 수용 능력, 친환경 항만 정책 등을 주제로 항만청 관계자들과 실무교류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제주항 개항 100주년을 준비하며 크루즈 관광 재도약, 탄소중립형 항만 구축, 스마트 해양물류체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하카타항은 친환경 설계와 대규모 여객 수용 능력을 갖춘 벤치마킹 대상지로 꼽히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해양도시 제주는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며,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해상교통·항만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크루즈·여객·친환경 선박까지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열겠다”고 밝혔다.

오소범기자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새단장 운영 시작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새단장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제주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시설을 보강해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성교육 전문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11년 문을 연 뒤 생명탄생과 사춘기, 10대 연애, 폭력 예방 등을 주제로 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체험관의 성교육 서비스는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문의 728-3499. 김지은기자



입춘은 멀었는데… 봄 알리는 영춘화 활짝 25일 서귀포시 대륜동 한 주택가 담장에 영춘화가 활짝 피 눈길을 끌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시, 바다환경지킴이 178명 내달 2일까지 모집

제주시는 청정 제주바다를 지키기 위해 해양 정화활동을 펼칠 ‘바다환경지킴이’ 178명을 다음달 2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36억2000만원을 편성해 전년보다 15명이 늘어난 17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바다환경지킴이’는 제주 연안에 대량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를 상시 수거하는 업무를 맡게 되며 신청일 기준 19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근로능력자로 제주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23일부터 2월 2일까지 희망 근무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바다환경지킴이는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림읍 등 13개 읍면동과 제주시권 항만 2개소(제주항, 한림항)에서 근무한다.

근로조건은 1일 7시간 근무이며, 월 보수는 221만여원이다. 위영석기자

학교폭력 피해·위기학생 지원 위탁기관 공모

도교육청, 오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폭력 피해 및 위기학생 회복지원 위탁기관 공모를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심리 회복과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2026년 전담지원 사무 위탁사업’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선정된 수탁기관은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통합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개인상담, 집단상담, 치유형 정서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개인상담의 경우 전문 상담사와 1대1 방식으로 진행된다. 언어

상담 뿐만 아니라 미술치료, 모래놀이치료, 놀이치료 등이 병행되며 1사례당 최대 10~12회(보호자 상담 포함) 내외로 운영된다.

집단상담은 학생 연령과 회복단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으로, 3~4명 이상의 소규모 그룹으로 구성된다. 예술·놀이·체험 활동을 활용한 치유형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개인·집단상담과 연계해 통합적 회복을 지원한다.

위탁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1년이다. 도교육청은 심사를 거쳐 7개 내외의 기관을 선정한다. 총사업비는 6400만원 규모이며, 기관별 500만원~1000만원 내외를 차등 지원한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서식은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재현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해병대 준장



현 우 식
(24기 · 제주대)



해병대 대령



문 원 욱
(24기 · 제주대)

진 금



이 재 익
(26기 · 한국해양대)



해병대 준장



고 정 희
(28기 · 제주대)

명예로운 진급,
대한민국 해병대와 ROTCian의 자랑입니다.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ROTC제주특별자치도지구회
회장 김 병 효 외 회원일동



대한민국해병대 ROTC 중앙회
회장 고 지 수 외 회원일동



제주대학교해군ROTC동문회
회장 변 대 근 외 회원일동